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부산광역시 동구
- 대한지역아동센터



2019. 1

짧지만 또 한 편으로 길었던 5일 동안 아이들과 저희 팀이 직접 같이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친구들과 정이 점점 들었다. 준비한 프로그램들 중 성공적인 것들을 보며 뿌듯했고 봉사를 하는 진정한 의미 중 하나인 '행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반면,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다음에 봉사할 기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해야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5일동안 30명 정도의 아이들과 지내면서 끊임 없이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누군가를 위한 배려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것 또한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팀원 5명과 수업관련, 숙소관련, 등등 5일의 활동기간과 그 이상의 회의시간을 통해서 단단한 팀원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저희 조원들이 각자 책임 맡은 일부를 때로는 묵묵하게, 때로는 서로서로 도우면서 전체를 채워서 5일 동안 정말 행복했다. 멘티들과, 그리고 멘토들과 보낸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 정말 값졌다고 생각한다.

천*민

합숙하는 교육봉사는 처음이라서 매우 새로웠고 합숙하면서 멘토들끼리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4박 5일 간의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준비한 만큼 100프로 발휘를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산만했고 학습적인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했다. 보다 신체적 운동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아이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어보는 시간이 너무 의미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학습장애가 있는 어린 친구들을 보며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그 친구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행복하고 착하게 컸으면 좋겠다. 또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집단따돌림이 보였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고 더 큰 도움이 못 되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5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정말 그동안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다.

양*윤

봉사활동을 기획하면서 한 봉사는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웠지만 5일동안 멘토들과 같이 합숙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점보다는 즐거웠던 순간들이 많았다.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잘 다독여 주니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하지만 아이들 속에서도 따돌림이 있고 서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아팠다. 그래도 아이들이 화가 나도 잘 잊고 우리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활동하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긴 적도 있었는데 멘토들과 잘 협동하면서 상황을 풀어나가면서 다음 봉사활동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내가 낯도 많이 가려서 멘토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 많이 했는데 센터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학교에서 잘 만나지 못하는 다른 과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 봉사활동 가기 전에는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직접 해보니 걱정보다는 보람이 더 많았다. 활동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아쉽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겨서 너무 좋았다.

김*린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4박 5일 합숙하면서 봉사는 처음이라 걱정이었다. 5일동안 아동센터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기에 과연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부담감도 있었는데 막상 가서 아이들을 마주하니 과한 걱정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멘토선생님들 지시를 잘 따라주어서 좋았다. 이번 봉사활동 프로그램 큰 주제는 "영어교육"이었는데 아이들이 초1-6으로 학년대가 각자 달라서 첫날에는 저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했지만 둘째날부터는 이론+활동을 적절히 나눠서 수업하니 모든 학생들이 잘 따라와서 뿌듯함을 느꼈다. 과 특성상 학원 알바를 하게 되어도 중.고등학생 위주로 지도를 해왔는데 이번 봉사활동에서 초등학생들을 전담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의 다른 교육방법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 봉사 가기 전에 팀원들과 몇 번 만나서 기획서 정리, 수업 준비를 하고 봉사 가서도 회의시간을 가지다 보니 부원 5명과 끈끈한 친밀감이 생겨서 팀워크도 기를 수 있었다. 수업 준비와 진행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봉사조원들과 아이들이 잘 도와주어서 봉사 활동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여 뿌듯하다.

조*주

봉사를 직접 팀원들과 기획하고 합숙하는 경험이 처음이라 초반에는 낯설게 느껴졌다. 생각보다 팀워크와 업무 분담이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첫날부터 일부 멘티들이 활동을 거부하기도 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든든하고 열정적인 멘토들 덕에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짧다면 짧은 5일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멘티들을 이해하고,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멘티들의 미숙한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생각보다 성숙한 모습에 놀라기도 하면서 많은 점을 느꼈다. 멘티들 중에서도 특히 소외되는 친구들이 눈에 띄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특별한 인연이 된 멘티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도 슬프게 느껴졌다. 그래도 잠시나마 멘티들과 보낸 시간이 작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 또한 봉사 시간 전후로 멘토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다. 이번 겨울 이화봉사단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든 것 같아 기쁘다.

4박 5일의 봉사 프로그램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팀끼리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막막했다. 학기 중에 바쁜 일정 중에서도 봉사단원들과 틈틈이 만나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경험이 앞으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때 큰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고 준비할 것이 많았고,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해갔다고 생각했으나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예상 돌발상황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우는 돌발상황이 많아 저희 단원들을 당황시켰다.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게임에 졌을 때 아이들이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황한 나머지 아이들의 울음을 달래주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프로그램 진행이 힘들었다. 앞으로는 우는 아이들은 한 두명의 멘토들만 전담해 서운함을 풀어주고 나머지 멘토들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같은 단원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4박 5일이었다. 아이들이 해주는 여러 얘기를 듣고, 또 팀원들과 소통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많은 깨달음과 기획 및 추진력 향상을 선물해준 4박 5일의 봉사는 저희 팀명처럼 정말 동화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